

다실연 農村 버베기 奉仕활동

일손 모자라는 農民에게 큰 도움

다산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위원장 이흥우·이하 다실연)회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촌 버베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다실연은 10월17일 포천시 자작동에서 농사일을 하는 김모씨가 일 할 사람을 못 구해 안타까워한다는 말을 듣고 회원들을 급히 소집하여 낫과 장화 등을 준비해 버베기 작업을 도왔다.

농업인 김모씨는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약과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눈에 풀이 많이 나고 벼 수확량이 적어서 콤바인 등 기계로는 도저히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손으로 벼를 벨 수 밖에 없었는데 다실연 회원들에게 고맙다고 포천막걸리와 감치를 가져와 한 사발씩 따라 주면서 본인은 6군단에서 방위근무를 하고 재대했는데 언제든 항상 부대를 쳐다보아도 정감이 가는 곳이란 하지만 부대에 설치되

어 있는 철책 울타리가 바로 눈 옆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싫는데 그 울타리를 제거 할 방법이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울타리를 없애 주던지 논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실연 위원장(이흥우)은 버베기를 하면서 옛날 향수에 젖어 볼 수 있었다며 그 옛날에는 손으로 벼를 베어서 그 벼줄기로 한 묶음씩 묶어서 밭로 밟아서 탈곡하는 밭 탈곡기가 있는 곳까지 양손에 한 묶음씩 들어서 날라 왔다면서 요즘 농사는 모두 기계화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벼를 손으로 벨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기억들을 망각하며 지낼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늘 버베기 봉사를 통해 지난 추억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기에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실연 회원들 모두가 큰 보람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회원들 모두가 지역 경제 살리기



다산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 회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촌 버베기 봉사활동을 지난 17일 실시했다.

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 사회 단체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곤 말하고 오늘의 피로는 포천 막걸리 한 잔으로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조사위원 정기모

Essay

고마운 스승님



윤순옥 포천역대간편위원회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고 따지듯 각박한 인심이 눈에 띄일 때마다 뒤라 참견을 못하고 저절로 눈살이 찌푸릴 때가 있다. 더구나 술한 사람들이 이 한 단자내에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들리는 미담보다 부끄

패 있는 작은 노트를 가져 오셔서 대조해보니 내가 기록한 계산보다 그분의 계산이 더 많았다.

빙그레 웃으며 "버베기 살다보니 많이 뼈빠졌구만" 당신의 계산대로 지불하시고 가시는 뒷 모습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참다운 인간미가 흐르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너그러운 분들이 많아 좋은 세상인지도 모른다.

어제 아침 어떤 남자가 현금 몇 만원 주워서 아들네 가게에 맡기면서 이 앞에서 주웠으니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라고 맡기셨다. 아들은 즉시 가게 앞 신호등에다 돈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라고 맡기셨다. 남들이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글씨로 써 붙였다. 그것을 보니 30여년전 나도 잊먹이 어린 발을 얹고 작은 슈퍼를 운영했다.

아이들 셋 데리고 하기관 힘든 일이었지만 매일처럼 이해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웃들이 있어 재미 있었다.

어느 날 김머는 노신사 한 분이 물건을 구입하시면서 월말 계산을 하라고 제의하셨다. 그날이후 거의 매일 조금씩 구입하고 나는 노트에 외상기록을 적었다.

한달이 되어 계산하러오신 노신사 분이 구입한 물건의 목록이 정확히 기록

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계산에 아예 나는 그분의 계산만 믿고 소홀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러 왔다고 하셨다. 웬지 명한 기본으로 쳐다보니 "나는 건국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라구 해서 가는 거야 젊은 애기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록해 내가 단골이 되었구면, 언제고 잘 사는 날이 꼭 올꺼야"

그때서야 물건을 더 산 대형수퍼를 지나 우리가게를 이용해주신 노신사 분이 대학교수님이요 아무 인연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거기에 나는 값진 인생공부를 했으니 새삼 그분이 수호천사쯤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삶의 모습은 영원히 내 생각에 간직되어 있다.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내 생활에 내 성의껏 살았으니 지금 이만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생활 속에서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해 본다.

자유 기고

제1회 곰두리체육대회를 마치고



박재훈 포천시장애인연합회장

시장님의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의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 체육회가 창립이 되어 제 1회 곰두리 장애인 체육대회를 10월 10일 날 갖게 되며 긍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저도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갖가지 운동 종목에 참여해보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종목에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목발을 짚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른 가벼운 장애를 가진 회원들과 조금도 거리낌 없

이 밝은 모습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곰두리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가 협회나 시 차원에서 많이 행사를 가지어 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화합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지는 물론 장애인들을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슨 일의 행사가 많은 협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장애인들의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화합된 모습으로 이번 곰두리체육대회를 치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곰두리 체육회를 도와주시고 양정희 교수를 비롯한 경북대학 작업치료과 학생들과 포천시 주민 지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자유 기고

생활체육 배드민턴

요즘 우리 주변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 심지어는 농어촌까지도 생활체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 차에서도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배구와 축구, 축구, 배드민턴, 사이클, 탁구, 골프, 수영, 스카우, 볼링, 게이트볼, 헬스, 그리고 요가 등 우리 주위에 많은 생활 체육들이 있지만 이 필자는 이 많은 종목 중 권장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배드민턴을 권하고 싶다.

배드민턴은 우선, 두 사람 이상이면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부부나 자녀와 친구, 이웃끼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서로 사람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한 부분이다. 요즘, 우리 포천권내에서는 배드민턴 연합회가 결성되었고, 각 읍, 면, 동 단위로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이 형성되어 예전에 산성터어나 동네 골목에서 혹은 집앞 마당에서 즐기던 배드민턴을 훌륭한 시설과 포천시에 관심과, 교육청의 배려로 인하여 체육관이 설립되고 이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날씨와 비에 영향을 예민한 배드민턴을 일년365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좋은 길들이 열렸다.

가족과 함께 특히, 부부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가장 건강과 이웃애와 화목을 통해 신명나고 살맛 나는, 지역과 나라가 바로 선 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때를 같이하여, 포천시 양호식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내 반월클럽, 소흘클럽, 가산클럽, 포천클럽, 제일클럽, 초가클럽, 일동클럽, 이흥클럽, 한마을클럽, 은광클럽 최근에는 관인면에 훌륭한 체육관시설이 건립되어, 지난 9월 관인클럽이 창단하게 되어 최전방에 농촌을 생활체육문화의 장이 열리게 되어 훌륭한 시설에서 주민들이 각종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런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개인클럽 1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한 데 모여 제1회 체육회 배드민턴 친선대회를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대학교 체육관을 배려 받아, 오늘 15일 각 클럽 친선경기를 시장님을 비롯한 한 기계 기관장, 15인 연합회부회장, 각 고문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1년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개인과 클럽의 명예를 위해 승부를 떠나 포천배드민턴 화합과 친목의 장을 펼치고자 제4회 체육회장배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동호인들의 자비확대를 위해 17개 코트를 활용하여 종전에 ABC등급에서 D등급을 추후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에 한껏 무게를 두고 경기를 운영하게 된다.

동네마다, 읍, 면, 동마다 서로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배드민턴운동을 확산시켜 포천시의 발전과 국가와 민족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동참하는 시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김형석 (본지 조사위원·이동배드민턴클럽 회장)



등산객 등산 후 축제참가 저조

제10회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행사 장소 제고해야



지난 14일과 15일 개최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예년과 달리 하동에서 공연무대가 마련되어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쳐 삼인들의 불만을 샀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폐막식 현장. 포천일고의 '메리리' 풍물패가 한바탕 풍물놀이마당을 펼치며 하동주차장에 모여 있던 관광객들을 이끌고 산책로를 거슬러 올라와 호수주변 폐막식 현장에 도착했다.

10월15일 저녁 7시, 산정리 청년회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한 억새배가 서서히 호수 한가운데로 진입하여 분수대 앞에서 '억새 달빛태우기'를 하며 소원을 빌었다. 박운국 포천시장과 자매도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의 폐막선언 및 카운트다운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산정호수 상공에서 펼쳐졌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놀러와 구경하던 관광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녁 7시 30분, 하동주차장도 40여개의 점포 및 체험관 중 3분의2이상이 모두 철수한 상태로 썰렁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틀간의 축제는 모두 막을 내렸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억새가 피는 것으로 유명하며 21세기 관광산업의 매카

로 성장하고 있는 포천시의 관광자원, 아름다운 자연과 인심, 역동하는 발전상 등을 관광객이 체험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억새꽃축제는 등산객을 위하여 간이 화장실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옛 추억을 되살려 산정호수를 따라 걸어보는 산책로를 이용한 기회도 돋보였다.

매번 지적되어 오던 화장실의 청결 및 관리미비, 물 부족 현상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동주차장에 특설무대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분산효과를 노려 교통체증을 해소한 점들은 이번 축제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행사가 하동에서 이루어져 상동의 등산객과 하동의 관광객이 분리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잘못된 점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름다운 억새밭까지 등산하고 내려와서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행사를 관람하고 함께 즐기며 머물러 가는 공간으로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는 "하동주차장에 마련되어 너무 일찍 공연이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축제 분위기를 무리하지 못했으며 교통체증은 해소되었지만 관광객이 머물러 가는 공간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예년에는 상동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등산객들이 내려와 차를 타고 돌아가기 전에 함께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차를 타고 내려가서 하동주차장에 다시 올라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것 같더라. 관광객이 상동과 하동으로 분산되어 교통체증은 해소되었는지 모르지만 관광 수익면에서는 이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정호수에 사는 한 주민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에 초점을 맞추어 넓게 생각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한 후 이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축제당시의 매상에 연연하다보면 이미지제고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동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상동무대에서 공연이 이어져 축제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공연무대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 관광객이 먹고 쓰는 분위기가 부족했다. 오히려 지난 주 보다 손님이 더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년과 달리 하동에 공연무대가 마련되어 너무 일찍 공연이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무리하지 못했으며 교통체증은 해소되었지만 관광객이 머물러 가는 공간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목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자유 기고

곰두리 체육대회 참가 後記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

10월 10일 포천 공설운동장에서 장애인 여러분 힘내세요 포천시가 함께 합니다! 관련해서 제1회 포천시 곰두리 체육대회가 많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 팔씨름·오재미집어넣기·웃놀이·투호·단체줄넘기·홀라후포틀리기·홀라리 등 7개 종목 경기가 벌어졌는데 힘차고 즐겁게 참여하고 응원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진지했으며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들의 최선을 다 해 열중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느끼게 했으며 어느새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조그마한 흐트러짐이나 반칙 없이 그저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체육경기가 끝나고 장기자랑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프로 못지 않은 춤과 노

래 솜씨를 뽐냈다. 특히 수어 바디 댄스는 국제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비록 단에는 못 오르고 휠체어에 탄 채 구경하게 불려 심금을 울린 그 장애우의 가락은 지금도 여운을 남긴다.

처음엔 자기 마을선수가 나오면 쫓아나와 춤을 추더니 분위기가 무르익자 음악이 나올 때 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신나게 몸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언젠가 강영우 님의 강연에 신체의 장애는 살아감에 불편할 뿐이지 마음의 장애가 더 큰 불행이라 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보기에 가여워서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인류애와 선진시민의식 발로로 표출되어야 하며 그런 성숙된 사회의식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참으로 오늘 하루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으며 뜻 있는 날이었음에 가슴속이 따뜻해 온다.

자유 기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차창 밖 들녘, 콤바인으로 벼를 추수하는 농부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내게로 전해지는 것 같다. 이 가을의 넉넉함과 맑은 하늘을 안고 명성산 억새꽃 축제로 향한다.

여성낙농협회 포천시지부 총무인 나는 우유요리 홍보시식회를 위해 행사장에 도착했다. 산정호수 한화콘도 앞 주차장에 행사장이 마련되었다. 작년까지는 예절교육원을 지나 놀이랜드 앞 주차장에 행사장이 있어서 주차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차량이 분산되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었다. 첫날 15일에는 육우협회 포천시지부 이인애 지부장과 송우, 포천가산 영종지부 회원이 참석하여 빠른 손놀림으로 우유 빈대떡, 우유떡, 우유죽, 우유영양칼슘밥 등 물 대신 우유를 넣어 만든 우유요리를 만들었다.

앞에는 포천시 축산농가회원분들이 삼겹살, 닭요리, 계란돈가스, 꿀과 쌀, 인삼 등 준비에 한창이었고, 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특히 올해는 아시아 외국인들도 각국의 음식을 준비하여 나

누덕으며 축제를 즐겼다. 명성산 산행을 한 등산객 차량의 여러 가족들, 친구들,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시식도 하고 무대 공연도 관람하고 노래 자랑도 하시며 흥겨운 분위기에 어우러졌다.

16일 둘째 날에는 청수 회원들이 참석했다. 청수 회원들은 단합이 잘되고 인원이 많아 쉽게 시식회를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던 중,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무료시식회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점심시간에는 중단해 주길 원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쉬는 동안 나와 양문에서 목장을 하는 미향 아주머니는 천연염색체험을 했다. 하얀 손수건을 단종으로 염색하기 위해 망치로 때리고 수저로 끊으며 어릴적 소꿉놀이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였다. 행사준비에 바쁘고 힘들었지만 맛있는 먹거리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있어 보람차고 뜻있는 흥보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포천에서 대한민국 축제의 개성 인삼 축제, 운악산 축제가 개최된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우리 고장 포천 축제에 참여하며 풍요로운 가을의 멋스런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